

## 머리글

이번 호의 「통합연구」가 기독교 철학을 특집으로 다룬 것은 무척이나 뜻깊은 일이다. 그것은 이 주제를 국내의 학술지에서 다룬 것은 이것이 최초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처럼 하나님의 말씀제시를 직접 다루는 학문을 제외하고는 학문전당의 초석을 이루는 것이 철학이라면 기독교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독교 철학이다.

‘기독교 철학’ 하면 독불에서는 Neo-Thomism 같은 카톨릭계 철학으로 이해 내지 오해한다. 이들에게서는 기독교 철학이라 얘기 할 때는 진리추구에 대한 이성의 자율적 기능과 기능을 운위하는 것 위에 형성된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이성의 전적 타락을 믿는 개신교 사상, 특히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신학 외에 철학이 차지할 위치가 없다고 본다. 결국 카톨릭에서 내세우는 ‘기독교 철학’은 자연신학(theologia naturalis)과 동일개념이든지 아니면 사촌개념인 것이다. 개신교 사상에서는 기독교 철학의 존립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고, 그 존립은 물론 이름의 가능성마저 깡그리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 대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제시에 대한 신앙만의 접근을 말하고 ‘철학’은 신앙을 배제한 진리추구에 대한 이성적 산물이므로 명사모순이요, 내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을 얘기하는 이들은 그것이 신학과 달리 독특한 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철학이라 칭할 만한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그 본질에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머물지만 그것은 증생된 이성애 의해 진리탐구를 수행할 때 기독교 철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은 멀리 Augustine을 효시로 하여 Calvin의 philosophia christiana를 거쳐 Kuyper와 Dooyeweerd, Van Til의 체계화된 기독교 철학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본서는 이런 의미에서 불과 네편의 논문이 실렸지만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했고, 기독교 철학사에서 큰 산맥을 형성한 Augustine과 Calvin, 그리고

Dooyeweerd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물론 앞서 쇠락해 가던 회람철학의 전통과 홍왕일로에 있던 고대 기독교와 그 사상 간의 만남을 기독교 철학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 명망을 얻고 있는 A. Holmes의 글을 통해 다루어 보았다. Holmes 교수는 「통합연구」에 필진으로 참가하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의 기독교적 학문 운동의 발전에 많은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부분으로 쓰여진 본고를 미리 한국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임을 '신적 로고스와 창조의 선행'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글을 충실히 번역 하느라고 총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상웅 형제가 많은 수고를 했다.

양승훈 교수는 물리학과 과학철학을 공부한 이후 Wheaton Colleg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Augustine에 관한 그의 글은 비록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어쩌면 Augustine 사상에서 핵심적인 이 주제를 간명한 분석과 명쾌한 논거로 펼쳐가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줄고는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 위에서 Augustine과 Luther의 사상 중에 성경적 원리에 맞는 것만 끄집어 내고 Kuypers와 Dooyeweerd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Calvin의 기독교 철학(philosophia christiana)을 다루어 본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Calvin에게서 철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라고 보고 그 감춰진 철학의 원리를 끄집어 드러내 보이며 그것이 그의 신학에 앞서 오며 신학의 구성원리가 되고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강영안 교수는 현재 기독교 철학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Amsterdam의 자유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이점을 살려 현대 기독교 철학의 대명사적인 Hermann Dooyeweerd의 우주법적 철학과 그것을 이론 방법론을 살펴보고 비판하고 있다. 그의 Dooyeweerd 비판은 Westminster의 C. Van Til이나 그의 제자 John Frame, 혹은 남아의 Taljaard, 화란의 Douma의 비판 보다는 또 색다른 것이다. 그는 Dooyeweerd의 철학에서 헬라적 요소들을 지적해 불러고 노력하는데 예컨대, 논리적 기능의 중시, 자아(ik)에 대한 지나친 강조, 체계수립의 위

협성을 언급한다.

이번 호는 전의 호들과 달리 서평란을 충실하게 꾸밀려고 노력했는데 Armstrong의 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번역된 작품들이다. Armstrong은 나의 학문적 선배로서 본서를 보내어 한국에서 서평해 주기를 요청하여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모두 15편의 논문을 집성한 것으로 평자는 각장을 상세히 살폈던 것이다. Bavinck와 Nash, 그리고 Yandell의 저작은 각기 특징적인 분야를 다룬 것들인데 전자가 다소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적 철학을, 중자는 소위 암스텔담 기독교 철학을, 후자는 일반 기독교 철학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평은 각기 부산의 한수환 형제, 서울의 오창희 형제, 미국의 권병우 형제가 수고했다. 특집 외에 오의석 교수의 성경적 조형관은 Postmodernism의 건축물이 등장하는 시대에 성경적 사상에 기초한 조형 원리를 연구한 것으로 이 분야의 개척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하여튼 이번 특집호를 통하여 기독교 철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램이다. 총주제에서 ‘회고와 전망’이라고 했지만 회고만 하고 전망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여력이 미진해서가 아니라 같은 학문적 비전을 가지고 동역하는 여러 독자들이 말아야 될 미래적 과제로 남겨 둔 것이고 열어 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여튼 ‘philosophia christiana semper reformanda’를 말한다면 Calvin이 Augustine을 개혁했고, Kuyper가 Calvin 사상의 어떤 측면을 개혁했고, Dooyeweerd가 Kuyper를 개혁했듯이 우리는 Dooyeweerd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통합연구」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이번에 많은 동역자들을 편집위원으로 모시게 된 일이다. 특히, 경실련의 서경석 목사님과 신학을 하신 이상규 교수님, 또 중진으로 수고하시는 김봉군 교수님과 신용태 교수님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 이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혜 그리고 직접적인 격려와 성원이 앞으로 우리 「통합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줄 믿는다.

1992년 늦봄에

편집인 전광식